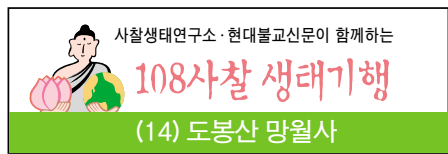


도봉산에 출렁이는 숲의 바다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고 한산의 새 주인이 된 신라는 그 후 양국의 협공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승승장구하던 국력이 잠시 주춤하던 선덕여왕 무렵(638년) 고구려 영류왕의 침공을 간신히 막아낸 신라는 이듬해, 부처님의 원력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도봉산 중턱에다 호국사찰을 세웠다. 절 이름도 나라(월성)의 안영을 기원해 망월사(望月寺)라고 했다.

그리고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천축사(673년)와 회룡사(681년)와 승가사(756년)가 창건되었으니 망월사는 한산의 으뜸 절로 부족함이 없다.



◇망월사 (영산전과 고사목), 여름씨름꽃(왼쪽 원), 큰까치수영(오른쪽 원).



망월사 전철역에서 내려 마을을 지나면 중앙천 상류인 원도봉 계곡이 내려온다. 그 계곡 위로 아스라이 높은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바로 그 근처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원도봉 구간이다.

아니나 다를까, 흥법사 산문 앞에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된 공고판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명의로 서술 퍼렇게 박혀있다. 공고문(2002 가01280호) 내용인즉, 조계종 회통사가 낸 공사 중지 가져본 신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별도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망월사 등산로 주변에는 아름드리 아카시아가 군락을 이루고

마사토와 지하수 파괴로 계곡 절반이 건천 물길 끊어진 소(沼)는 생명의 보금자리



◇망월사 산떨나무.

있다. 50년 수령을 넘어서는 노거수들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손에 의해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지만, 우리 산림에 우려할 만큼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산사태 예방과 치료 기능도 뛰어나고, 우리나라 풀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제1의 밀원수다.

산에 들어와 물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으랴. 도봉산 계곡이 대개 그렇듯이 원도봉 계곡도 1년의 절반 이상은 마른 내(乾川)다.

이 계곡의 건천화는 지질적인 요인이 강하다. 입자가 굵은 왕모래와 마사토는 입자가 작은 흙에 비해 물을 담아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하수 체계의 파괴가 의심된다. 함부로 지하수를 파거나 위쪽 물을 파이프로 끌어당겨 버리면 지하수 체계가 망가져서 결국은 마른 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국에 정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관통하는 터널까지 뚫고 있으나.....

근데근데 물길이 끊어진 소(沼)는 생명의 아지트다. 청개구리·산개구리·도롱뇽 등을 비롯해 날도래·강도래·하루살이·가재·열새우·뱀잡자리 유충·물중구리 등의 생명체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며 살아간다. 아침저녁으로는 새들이 돌아와 목욕을 하고, 다람쥐와 청솔모 같은 네발 가진 동물들이 내려와 목을 축인다.

특히 버들치는 1급수 지표종으로, 버들치의 생사여부로 원도봉 계곡의 환경이 진단된다. 버들치가 사라지는 날이면 이 계곡의 생명사슬도 끝장이다. 그것도 모르고 어른들까지 쫓는 아이들과 함께 소에 들어가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화계사 계곡처럼 아주 자취를 감추게 될 지도 모른다.

불어삼은 망월사의 산내토굴이다. 킷마당에는 잘 생긴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하고, 그 나무 아래 까치수염이 군락을 이루며 피

었다. 예전에는 공양주보살들이 어린 순을 나물로 무쳐서 스님들께 올렸다.

도봉의 숲이 이나마 건강하고 다양한 것은 용성 큰스님의 크나큰 자애 덕분이다. 큰 스님께서 망월사에서 만일점선결사(萬日參禪結社)를 시작한 것이 1925년의 일. 결사 후 대중들이 점차 늘어나자 식량 걱정에 앞서 딸감이 걱정이었다. 산중임해(山中林海)에 살면서도 함부로 나무를 베어다 쓸 수 없다 하시고는 대중들을 거느리고 통도사 내원암으로 내려가신 것이다. 지금 원도봉을 뒤덮고 있는 짙은 숲은 당시 큰스님의 은력을 입고 살아남은 나무들의 후손들이다.

용성스님의 '나무사랑' 지금의 숲 보전계기 정숙·쓰레기 가져가기로 청정도량 유지

망월사 천중선원은 만공, 한암, 성월 등등의 기라성 같은 선각자들이 수행했던 절이다. 선원 뒤로 건장한 노승들이 산수화처럼 서 있다.

나가보전 옆 금강문을 지나면 포대능선으로 가는 등산로가 나 있다. 뒤돌아보니 금강문에 아니오신 듯 다녀가시옵소서라는 글귀가 붙어있다. 참 좋은 글귀다. 청정한 수행사찰이니 정숙을 지켜달라는 호소이기도 하고, 청정한 산중사찰이니 쓰레기 등을 남기지 말고 아니 오신 듯 다녀가라는 나직한 청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절도 화답해야 할 것이다. 물량주의가 아니라 무소유에 철저한 불사, 돌맹이 하나 풀 한포기 해치지 않는 무부(無紐)의 불사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절 주변의 망월사 노승들을 보면 춘성선사의 일화가 떠오른다.

스님이 한국 전쟁 직후 불사를 할 때 부득이 주위의 소나무를 베어냈다가 절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스님은 경찰에게 걸쭉한 육두문자와 선문답으로 설득시켜 돌려보냈다. 지금 망월사 주변의 노송들은 그 때 용케 살아남은 소나무들이다.

도봉산은 장엄하고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노령기에 접어든 산이다. 도봉산의 화강암은 알갱이가 굵고 오랜 풍화작용으로 인해 밟고 지나가기만 해도 쉽게 부스러진다. 그래서 곳곳에 마사토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마사토는 수분이나 토양분을 오래 저장하지 못하고, 게다가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식물들의 생육에 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럴 때 낙엽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마사토를 기름지게 해주기 때문이다. 토양이 척박한 곳일수록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곳곳에서 만나는 물오리나무도 그런 사방(砂防)을 위해 심은 것이다.

도봉의 정상은 자운봉이지만, 도봉산의 명색은 만장봉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일찍이 만장봉을 석가봉, 자운봉을 지장봉, 신선대를 비로봉이라고 했다. 천축사가 만장봉 아래 절이다. 북서쪽 능선을 타면 자운봉-만장봉을 거쳐서 북한산에 이르고, 남동쪽으로 능선을 타면 북한산 관통터널로 목숨 줄이 명각에 달린 사계산에 이른다.

■ 교통: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신촌대학 앞을 지나서 올라간다.

http://cafe.daum.net/templeco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희담석
mahamall.co.kr
미하몰이 추천하는 효도선물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 전하는 감사의 선물-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 방석)
* 권당소매가격 : 198,000원
* 색상: 연카키리, 실구석



(희담석 찜질팩)
* 권당소매가격 : 38,000원



(희담석 매트)
* 권당소매가격 : 13,000,000원
* 2인용 매트: 13,000,000원
* 4인용 매트: 18,000,000원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의 오지에서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다. 방출되는 음전위산의 결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나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정제과정 자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체활성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방석과 희담석 찜질팩은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켜 주는 제품입니다. 희담석은 세포의 활성화, 노폐물 배출, 노화 억제, 항균 방어력 증강, 통증 완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식품의 신선도, 식물 성장 촉진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제조원 (주)자원넷 JAWONNET CO., LTD.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